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9년04월08일
 (11) 등록번호 10-0891986
 (24) 등록일자 2009년03월30일

(51) Int. Cl.

A61K 8/97 (2006.01) *A61Q 19/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84823

(22) 출원일자 2007년08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8월23일

(65) 공개번호 10-2009-0020234

(43) 공개일자 2009년02월2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00058474 A

KR20020065185 A

KR20030017845 A

KR20030083159 A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73) 특허권자

최진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9 소산빌라 2차 102호

(72) 발명자

최진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9 소산빌라 2차 102호

최상훈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66-19

(74) 대리인

유완식, 이은철

심사관 : 이동욱

(54)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

(57) 요약

본 발명은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귤껍질)를 혼합한 생약 추출물과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의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보습, 보온, 탄력 및 미백효과가 우수한 한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자극(기)과 침투 작용으로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근육피로, 피부노화 등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으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안전한 물질로서, 화장수, 에센스, 로션, 크림, 팩, 젤, 연고 등의 제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및 진피(귤껍질)를 혼합한 생약 추출물과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의 생약 분말을 120 : 50의 중량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약 추출물은 포공영 : 산사 : 삼릉 : 청피 : 진피를 2 : 2 : 2 : 1 : 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약 분말은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를 5 : 5 : 20 : 1 : 1 : 0.02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4

(1)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및 진피를 2 : 2 : 2 : 2 : 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생약 추출물을 제조하고;

(2)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를 5 : 5 : 20 : 1 : 1 : 0.02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생약 분말을 제조하고; 및

(3) 상기 (1)의 생약 추출물과 상기 (2)의 생약 분말을 중량비 120 : 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1)의 생약 추출물은 혼합 약재 중량의 3배의 찬물에 2시간 담가 불린 후 끓이되, 끓기 시작하면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더 끓인 다음 5시간 정도 침전시켜 침전물을 제거한 다음, 다시 끓여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귤껍질)를 혼합한 생약 추출물과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의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보습, 보온, 탄력 및 미백효과가 우수한 한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인체의 피부는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로서, 과도한 자외선이나 오염 물질 등에 노출되면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이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에 의해 홍반, 부종, 뾰루지, 따끔거림, 가려움 등의 피부 자극 및 염증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

<3> 상기 원인들에 의해 생성된 피부 트러블은 미관상 문제가 될뿐더러 염증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부수적으로 피부의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피부 탄력 섬유의 붕괴를 촉진시켜 피부 주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피부 노화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미백 효과가 있는 물질, 자외선 차단제,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보습제, 신진대사 촉진제 등이 복합적으로 처방되어야 한다.
- <5> 그러나, 종래 미백, 보습,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합성원료는 그 효능은 뛰어나나 장기간 사용 시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 피부 안정성과 제형에서 유효 성분의 안정성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6> 그 결과, 종래의 보습,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을 가진 원료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방 생약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의학에서 보편적인 생약재를 사용한 화장료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 <7> 이에 본 발명자들은 한방 생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료를 개발하고자 노력을 계속한 결과,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귤껍질),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에서 얻은 추출물과 분말을 혼합하여 피부에 자극이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부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피부 보습력을 증대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 <8> 결국, 본 발명의 목적은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귤껍질),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에서 얻은 추출물과 분말을 함유하는 보습, 보온, 탄력 및 미백효과가 우수한 한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 <9>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 해결수단

- <10>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및 진피(귤껍질)를 혼합한 생약 추출물과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의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보습, 보온, 탄력 및 미백 효과가 우수한 한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 <11>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효 과

- <12>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귤껍질)를 혼합한 생약 추출물과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의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보습, 보온, 탄력 및 미백효과가 우수한 한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 <13>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자극(기)과 침투 작용으로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근육피로, 피부 노화 등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으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안전한 물질로서, 화장수, 에센스, 로션, 크림, 팩, 젤, 연고 등의 제형으로 이용될 수 있다.
- <14> 또한, 한방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로 구성되어 피부에 퍼짐성이 좋고, 쉽게 흡수되며, 우수한 피부 보습효과로 잔주름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꿀 수 있으며, 미백 효과가 우수하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15>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6> 본 발명은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및 진피(귤껍질)를 혼합한 생약 추출물과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의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 <17>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를 물에 끓여서 추출액만 수거하는 과정으로 제조한 생약 추출물을 제공한다.
- <18> 이때,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상기 생약 추출물을 전체 조성물 중량에 대해 0.001 내지 50.0중량%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추출물은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및 진피를 2 : 2 : 2 : 1 : 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물 및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등과 같은 C₁ 내지 C₄의 저급알코올 및 이들의 혼합용매, 바람

직하게는 물에 가용한 추출물을 포함한다.

- <19>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유효성분으로 포함되는 생약 추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기 포공영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화과의 민들레(*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edt) 또는 동속 식물의 전초를 지칭하며,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차다(苦甘寒). 열독을 내리고 종기를 삭히는 약으로 종창, 유방염, 인후염, 옹종(맹장염, 폐농양, 복막염)에 쓰이며, 안구충혈, 급성간염, 황달, 열로 인해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에 사용한다. 또한, 약리작용으로 역균작용, 면역기능강화, 담즙분비작용, 간기능보호작용, 이뇨작용이 보고되었다.
- <20> 상기 산사(아가위)에는 쿠에르세틴을 비롯하여, 플라보노이드, 스테로이드, 사포닌, 레몬산, 포도술산, 우르솔산(ursolic acid), 글로르겐산, 유기산, 콜린(choline), 비타민 C, 카로틴, 당, 탄닌, β-시토스테롤(β-sitosteol)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맛은 달고 시며, 비위에 작용하여 소화력, 기혈을 잘 통하게 한다. 또한, 심장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강심작용을 하고, 가슴의 두근거림과 부정맥을 없애 준다. 이밖에도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식체, 이질, 고혈압, 고지혈증, 간부기(浮氣), 비장부기에 효과가 있다.
- <21> 상기 삼릉은 맛이 맵고 쓰며, 간경에 작용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어혈을 없애고, 기를 돌아가게 하며, 적을 없애고, 아픔을 멈추게 한다. 또한, 생리가 없을 때, 산후어지러움증, 산후복통, 적취, 간증, 비증, 타박상 등에도 사용된다.
- <22> 상기 청피는 운향과의 귤나무(*Citrus unshiu* Markovich)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덜 익은 과피를 지칭하며, 성분은 리모넨으로 방향성의 청량감이 있고 맛은 쓰며 조금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苦辛微溫). 간 담경에 작용하므로 가슴과 옆구리, 위장의 통증, 간염, 위염, 유방염, 유방암에 쓰인다. 스트레스, 음식을 먹고 체한 경우, 가슴에 멍울 등이 생긴 경우, 학질 등에 쓰이며 간경변, 비장종대 등에도 응용된다. 약리작용은 정유 성분이 소화기자극, 소화촉진, 거담, 항레양, 항위액분비, 강심, 혈압상승, 항알레르기, 담즙분비촉진, 자궁평활근억제, 항균작용 등을 한다.
- <23> 상기 진피(귤껍질)는 물푸레나무과의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Hance)의 가지 또는 줄기의 껍질로, 정유를 0.3 ~ 0.4%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정유의 주성분은 d-리모넨이다. 비타민 C와 비타민 P 등이 있고, 냄새가 없으며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다(苦寒). 열을 내리고 습을 말리는 효능이 있어 이질, 대하, 다래기, 안구충혈, 동통, 해수, 천식에 쓰이며 진해거담 작용을 하고, 소염, 진통, 요산배설, 진해거담, 역균 작용의 약리 작용이 있다.
- <24> 또한, 본 발명은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를 포함하는 생약 분말을 제공한다.
- <25> 이때,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상기 생약 분말을 전체 조성물 중량에 대해 0.001 내지 50.0중량%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분말은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를 5 : 5 : 20 : 1 : 1 : 0.02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300 메쉬(mesh)의 크기로 분쇄한 것이 좋다.
- <26>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에 유효성분으로 포함되는 생약 분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기 대산(마늘)은 알린(alliin)이 들어 있어 물에 잘 풀리고, 효소인 알리나제(allinase)에 의하여 알리신(allycin)으로 분해된다. 마늘에는 유허배당체인 스코르디닌 A, 정유, 기름, 피토스테린, 피톤치드, 비타민 C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냄새가 나며, 맛은 몹시 맵고 성질은 따뜻하다(辛溫). 종기나 부은 상처를 삭아 없어지게 하는 소종 작용이 있으며, 발진, 가려움증, 피부가 헐어 독이 되는 증상, 폐결핵, 이질, 설사, 비위가 차서 생긴 통증에 쓰인다. 약리작용으로 생식세포와 종양세포에 작용하며 항균작용, 진균억제작용, 아메바성 이질억제작용, 심장수축력증가, 말초혈관확장작용, 이뇨작용, 죽상동맥경화 치료작용이 보고되었다.
- <27> 상기 생강은 가을에 잎이 마른 때 뿌리줄기를 캐어 줄기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마르지 않도록 습한 모래에 묻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 것을 사용하는데, 한방에서는 뿌리줄기 말린 것을 건강(乾薑)이라고 하여 약재로 쓴다. 주성분은 정유이며, 상기 정유에는 많은 양의 진기베렌, 치네올(cineol), d-피넨, 적은 양의 진기베롤, 비사볼렌, 리날론, d-보르네올, 쿠르쿠멘, 유게놀, 파르나센, 캄펜 등이 있으며, 매운 맛 성분은 진기베론, 진기베롤, 쇼가올이 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소화불량, 구토, 설사에 효과가 있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항염증과 진통 효과가 있다.
- <28> 상기 생강과에 속하는 강황(*Curcuma longa* Linne)은 특이한 냄새가 있고 씹으면 침을 누렇게 물들이며 자극성이 있다. 쿠르쿠민, 정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정유의 주성분은 투르메론, 진기베렌 등이다.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서늘하다(辛苦凉). 기를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생리통, 생리불순, 옆구리통증을 치료하고 토혈, 코피, 피오줌을 치료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흉복부가 그득한 것을 없애주고, 담즙분비 촉진과 담낭결석을 치

료한다. 약리작용은 담즙분비, 배설 촉진, 관상동맥안의 반괴형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 <29> 상기 후박피(厚朴皮)는 중국후박나무 및 일본후박나무의 껍질로, 맛은 쓰고 매우며 따듯하고, 비장, 위장, 대장에 주로 작용한다. 약리 작용으로는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위액분비를 억제시키고, 중추신경 억제작용, 혈압강화작용이 있으며, 비교적 강한 항균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임상보고에 따르면 자궁절제수술시 수술 전에 복용하면 수술 중에 나타나는 고창(鼓脹)형상을 완화시킨다 하며, 급성장염, 세균성, 아메바성 이질에 효과가 있다.
- <30> 상기 용뇌(龍腦)는, 용뇌향과의 용뇌향(*Dryobalanops aromatica* Gaetner; 龍腦香)의 수간창구에서 흘러나온 수지 또는 수간과 가지를 썰어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백색의 결정체로, 약리 작용으로는 항균, 항염증작용이 있으며, 국소적인 진통작용과 방부작용이 보고되었다.
- <31> 본 발명에 있어서, 포공영은 꽃이 필 때 뿌리까지 채취한 것이 좋으며, 산사는 크고 고르면서, 살이 많고, 붉은 밤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 또한, 삼릉은 질이 굳고, 무거우면서 잿빛이 도는 흰색, 흰누런색이 좋으며, 청피는 껍질이 두텁고, 굳으며, 향이 강한 것이 좋고, 진피는 크고 색이 선명하며, 향이 강한 것이 좋다.
- <33> 또한, 대산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심상한 것이 바람직하며, 강황은 크고 질이 좋으며, 충실하고 자른 면이 누른색이 좋다.
- <34> 또한, 후박은 껍질이 두껍고 치밀하여 기름기가 많고, 냄새와 맛이 세며, 자른 면에서 반짝이는 작은 점들이 많고, 씹을 때 찌꺼기가 적은 것이 좋다.
- <35> 상기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용뇌는 오랫동안 생약으로 사용되어 오던 약재들로서 이로부터 추출된 본 발명의 추출물 및 분말 역시 독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없다.
- <36> 여기에서,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은 상기 생약 추출물과 상기 생약 분말은 중량비 120 : 50 의 비율로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 <37> 또한, 본 발명은
- <38> (1)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및 진피를 2 : 2 : 2 : 1 : 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생약 추출물을 제조하고;
- <39> (2)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를 5 : 5 : 20 : 1 : 1 : 0.02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생약 분말을 제조하고; 및
- <40> (3) 상기 (1)의 생약 추출물과 상기 (2)의 생약 분말을 중량비 120 : 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 <41> 본 발명에 따른 한방 화장료 조성물은 통상의 제형을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화장수, 에센스, 로션, 크림, 오일, 팩, 젤, 연고 등으로 제형화 될 수 있다. 이때 각 제형의 조성물을 그 제형의 제제화에 필요하고 적절한 각종의 기재와 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이들 성분의 종류와 양은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선정될 수 있다.
- <42> 이하에서는 화장료 조성물의 대표적인 화장수 조성물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 <43>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함유하는 한방 화장료 조성물은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피부 상태 또는 취향에 따라 그 사용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 <44> 이하, 본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45>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내용이 하기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을 아니다.
- <46> **실시예 1. 생약 추출물의 제조**
- <47> 음건한 포공영, 산사, 삼릉, 청피, 진피를 서울 소재의 경동시장 한약재상에서 구입하고, 이를 엄선하고 선별하여 중량비로 2 : 2 : 2 : 1 : 1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 <48> 상기 혼합 약재 중량의 3배의 찬물에 2시간 담가 불린 후 끓이되, 끓기 시작하면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더 끓인 다음 5시간 정도 침전시켜 침전물을 제거한 다음, 다시 끓여서 생약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 <49> 다른 방법으로는, 50 ~ 100℃의 물에 상기 혼합 약재를 넣고, 2 ~ 3시간 끓인 후에 상기 혼합 약재를 끓인 물만

수거하여 생약 추출물(비교예 1)을 제조하였으며, 3배 중량의 70% 알코올(에탄올)에 하룻밤(overnight, 약 15시간) 침지시켜 상기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추출한 용액만을 수거하였다(비교예 2).

<50> **실시예 2. 생약 분말의 제조**

<51> 서울 소재의 경동시장 한약재상에서 구입한 포공영, 대산(마늘), 생강(건강), 강황, 후박피 및 용뇌를 5 : 5 : 20 : 1 : 1 : 0.02의 비율(중량비)로 분쇄기에 넣고, 300 메쉬 크기로 분쇄하여 생약 분말을 제조하였다.

<52> **실시예 3.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

<53> 본 발명에 따른 한방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를 위하여, 상기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서 제조한 생약 추출물과 생약 분말을 중량비로 120 : 50의 비율로 혼합기에 넣고 혼합하여 제조하고 5℃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54> **실시예 4. 화장료의 효능 조사**

<55> 상기 실시예 3에서 제조한 화장료를 20 ~ 70대의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사용감(피집성), 침투성, 매끄러움, 윤기, 보습성, 탄력성, 미백효과, 피부자극 등에 대하여 패널(panel) 실험을 3개월 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에 나타내었다.

<56> 이때, 평가결과는 각각의 패널이 부여한 점수를 평균으로 나타내었으며, 점수는 매우 좋은 경우를 5점 만점으로 하여, 좋다(4점), 보통이다(3점), 나쁘다(2점) 및 매우 나쁘다(1점)로 나누어 부여하도록 하였다. 단, 피부자극의 경우에는 있다(○), 없다(×)로 평가하였다.

<57> 평가방법은, 얼굴의 경우 세안 후 적당량을 얼굴 피부색이 가려질 정도로 도포하고, 40분 내지 1시간정도 편안하게 휴식(수면)을 취한 다음,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안하여 세안 후 미백, 보습, 사용감, 피부자극을 평가하였으며(표 2 참조), 신체(body)는 상기 얼굴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자신감, 탄력성, 노폐물 및 각질 제거 효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표 3 참조).

<58> 하기 표 1은, 생약 추출물의 추출방법에 따른, 미백, 보습, 사용감 및 피부자극을 평가한 결과로, 열수추출물 및 알코올추출물의 경우에는 피부자극이 있었으며, 열수추출물은 미백과 사용감에서, 알코올추출물은 사용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59> 또한, 표 2와 표 3은 패널들의 체험 평가 결과로, 얼굴의 경우 미백, 보습, 사용감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피부자극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참조). 반면, 신체의 경우, 얼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백, 보습, 사용감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탄력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표 3 참조).

<60> 특히, 얼굴의 경우 1개월간 사용 후 미백, 윤기, 보습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개월 후에는 처진 부분에서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3개월 후에는 탄력, 미백, 보습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표 1

추출방법	미백	보습	사용감	피부자극
실시예	양호	양호	양호	없음
비교예 1	미흡	양호	보통	따가움
비교예 2	양호	양호	보통	가려움

표 2

번호	나이	피부종류	미백	보습	사용감	피부자극
1	42	건성	5	5	5	○
2	15	아토피	3	4	4	×
3	59	건성	4	5	5	○
4	68	약건성	4	5	5	○
5	71	건성	5	4	5	○
6	32	건지성	4	5	5	○
7	20	여드름	3	4	4	×
8	25	민감	5	5	5	○

9	44	모세혈관	3	4	4	○
10	35	복합성	4	5	5	○
11	67	색소침착	3	4	4	○
12	37	건지성	5	5	5	○
13	18	여드름	3	4	4	×
14	39	지성	5	5	5	○
15	66	건성	4	5	5	○
16	60	노화	4	5	5	○
17	54	건지성	5	5	5	○
18	41	복합성	4	5	5	○
19	71	노화	4	4	5	○
20	58	건성	5	4	5	○

<63>

표 3

<64>

번호	나이	피부종류	미백	보습	사용감	탄력	피부자극
1	42	건성	2	3	4	4	○
2	15	아토피	1	3	3	2	×
3	59	건성	2	2	4	3	○
4	68	약건성	2	2	3	3	○
5	71	건성	3	3	4	3	○
6	32	건지성	3	3	4	4	×
7	20	여드름	4	4	3	4	○
8	25	민감	3	3	3	5	○
9	44	모세혈관	3	3	3	4	○
10	35	복합성	4	2	4	3	○
11	67	색소침착	2	3	2	4	○
12	37	건지성	2	3	2	4	○
13	18	여드름	3	4	3	5	×
14	39	지성	3	3	2	4	○
15	66	건성	3	3	4	3	○
16	60	노화	2	4	2	4	○
17	54	건지성	3	3	3	3	○
18	41	복합성	3	3	4	4	×
19	71	노화	2	3	4	3	○
20	58	건성	3	3	4	4	○

<65>

<66>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